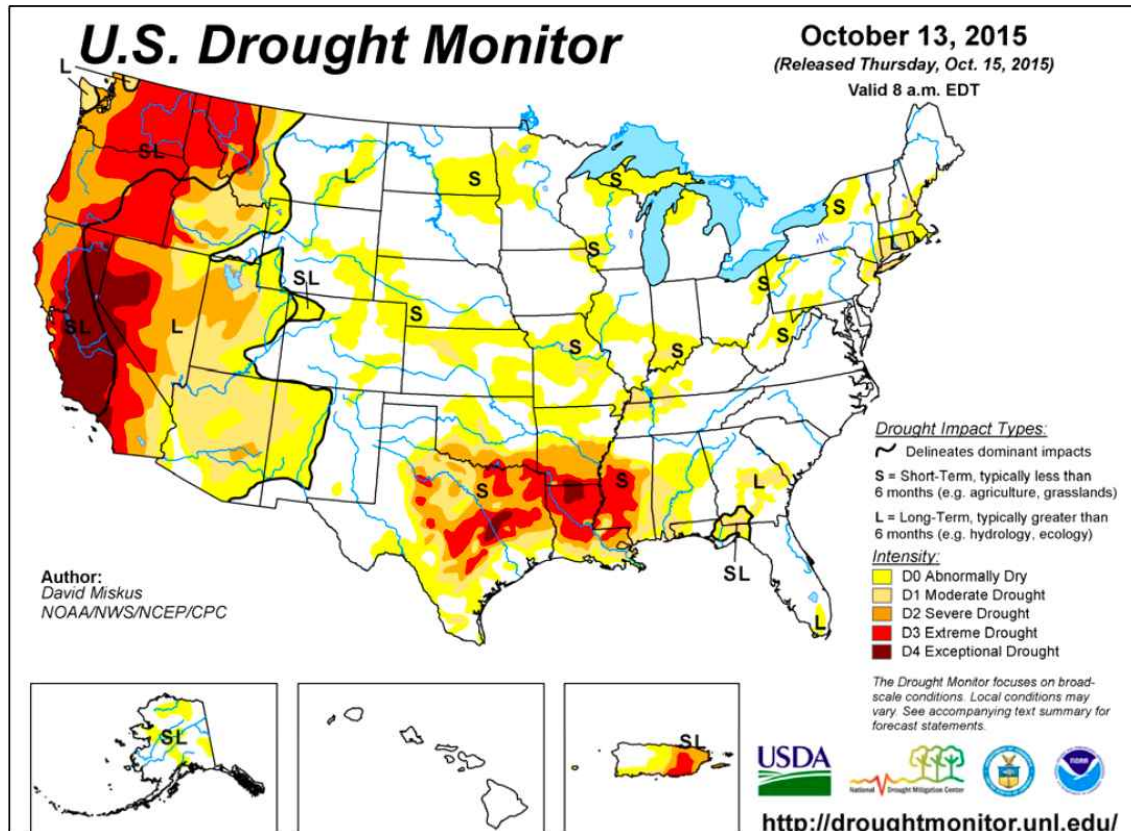


10월 2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42)

□ 미국 기후 현황(10/11~10/17)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름작물 수확작업과 겨울작물 파종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대평원과 중서부 저지대, 북서부 내륙지역에서는 겨울작물 발아자 늦어지고 있다. 대평원 남동부와 미시시피 델타 지역에서도 일시적인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남부에서는 이번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뿐 아니라 초지에서도 피해가 생기지 않을 우려하고 있으며,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다. 중부와 동부 전역에서는 따뜻한 날씨가 물러나고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가을을 재촉하고 있다. 중서부와 북동부, 남동부의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은 평년 수준을 기록했지만, 오하이오 협곡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동서부에서는 지난 주말 기온이 영하 가까이 내려가기도 했다. 서부의 캘리포니아, 내륙산간 서부 등 일부지역에서는 지난 한주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0°F 이상 높은 날이 많았다. 하지만 10월 중순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나기가 몇차례 내리기도 했다.

## □ 농업 현황 요약(10/12~10/18)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적은 양의 비가 왔고, 맑은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수확작업을 비롯한 여러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씨에라 네바다와 로키산맥 사이의 내륙 산간지역 일부와 Erie호 일대에서만 지난 한주간 평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기온은 지역별로 차이가 났는데, 미시시피강 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동부에서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3°F 높거나 낮은 날이 많았다. 오하이오 협곡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다.

### ■ 옥수수

10월 18일 기준 전국 옥수수 재배지의 98%에 이르는 지역에서 옥수수가 충분히 여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보다는 6%p 앞선 수준이고, 직전 5년 평균보다도 2%p 앞선 상황이다. 전국 평균 수확량은 5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동기보다는 29%p 앞선 수준이고, 직전 5년 평균보다도 4%p 앞서고 있다. 전국 수확률은 지난 한주간 17%p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미네소타에서 29%p, 아이오와에서 23%p, 노스 다코타에서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고,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6%p 낮은 수준이다.

### ■ 겨울밀

10월 18일 기준 전국 파종률은 76%를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간 앞서지만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뒤쳐진 수준이다. 인디애나에서는 지난 한주간 파종률이 27%p 증가했고, 오하이오에서는 23%p, 일리노이에서는 22%p 증가했다. 지난 주말 기준 전국발 아율은 49%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p 뒤쳐진 상황이고 직전 5년 평균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 ■ 면화

10월 18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열린 비율은 9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9%p 앞선 상황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5%p 앞선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기준 면화 수확률은 31%이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3%p 앞서지만 5년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뒤쳐진 수준이다. 알칸사스에서는 지난 한주간 전체 재배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수확이 이루어진 것으로 자나탤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약 25%의 수확률을 기록하고 있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1%p 하락한 수준이며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에도 약간 낮은 수준이다.

### ■ 쌀

10월 18일 기준 전국 수확율은 95%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5%p 앞서고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8%p 앞선 수준이다. 모든 주에서 수확작업의 진행률이 직전 5년 평균과 비슷하거나 앞서고 있다..



## □ 세계 기후 현황(10/11~10/17)

■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겨울작물의 생육에 좋은 날씨가 이어졌다. 중부 지중해 연안의 이탈리아, 발칸반도 북부에서부터 독일과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 저기압 세력이 확장하면서 1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폴란드에서는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비 다운 비가 내렸고,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일부 저지대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 그밖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 겨울밀 생육에 도움이 되었다. 독일 북동부에서는 비가 내리기 전 기온이 영하 5~2°C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독일과 폴란드 등에서도 첫 눈이 내렸지만 눈이 쌓일 정도는 아니었다. 프랑스 중부와 서부, 영국에서는 화창한 날씨 덕분에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베리아 반도 서부에서는 10~7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중부와 북부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지난 한주간 기온이 평년보다 3~7°C 정도 낮았지만 겨울작물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

■ 구소련(서부):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온도 상당히 내려가 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부와 동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남부 일대에서는 60일 이상 평년의 25% 수준의 비가 내린 상황이며, 물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겨울밀 생육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황이다. 가뭄에 이어 기온도 영하 8~3°C까지 내려가고 한주간 평균기온이 영하 5°C에 머물면서 이같은 전망은 한층 어두워진 상황이다. 가뭄과 때이른 추위 때문에 많은 수의 재배자들이 내년 봄까지 파종을 미뤄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흑해 연안과 Moldova에서는 지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 동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북동부, 북부 고원지대, Yangtze 계곡 일대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와 더불어 평년보다 1~3°C 기온이 높은 날이 지난 한주간 이어졌다. 여름작물의 수확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Yangtze 계곡 일대에서는 유채 파종작업도 차질없이 진행되었고, 북부 고원에서는 겨울밀 파종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Heilongkiang, Jilin 등 북동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를 유지했다. 한국에서도 맑고 화창한 날씨 덕분에 수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일본에서는 지역에 따라 25mm 내외의 비가 내려 벼 수확작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 호주: 서호주 지역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빅토리아 북부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이어졌다. 평년보다 2~5°C 정도 높은 이례적으로 따뜻한 기온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작물의 가뭄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빅토리아 북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C까지 오르기도 했고, 서호주와 남호주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올랐다. 뉴 사우스 웨일즈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도 넓은 지역에 걸쳐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더운 날씨로 인해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지역의 밀 생산량 전망은 어두워졌지만, 반대로 파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겨울작물의 생장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 지역의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4~6°C 정도 높았고,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지역에서도 평년보다 2~4°C 정도 기온이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 아르헨티나: 중부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비는 La Pampa 북부지역에 집중되었는데 강우량은 25mm 이상을 기록했고, Buenos Aires에서도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렸다. Buenos Aires 남서부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평년보다 2~3°C 정도 낮은 기온으로 인해 겨울밀과 보리의 성장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지역이 Buenos Aires, La Pampa 등 남부 일부에만 국한되고 있다. Santa Fe, Entre Rio 등 북동부 지역에서는 2~25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그밖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북부지역에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낮 최고기온은 35°C까지 치솟았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10월 15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22%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와 비교했을 때 진행이 늦은 상황이다.

■ 브라질: Mato Grosso do Sul, Sao Paulo 남부, Rio Grande do Sul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비는 며칠간 이어졌으며, 이번 비로 인해 수확작업과 병해충 방제작업이 지연되었다. 이와 달리, Sao Paulo 북부, Minas Gerais 등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40°C까지 오르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북동부 내륙의 주요 곡창지대인 Bahia, Tocantins, Maranhao, Piaui 등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농가에서는 비가 내릴 때까지 대두와 면화 등의 파종작업을 연기할 계획이다.